

“5·18 50주년 위한 마스터플랜 ‘일찍·철저히’ 수립해야”

제45주년 5·18행사위 평가토론회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을 짚는 자리에서 다가올 제50주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일찍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제45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위에 속한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중의례 ▲개회 ▲인사말 ▲결과·모니터링

5월17-18일 광주 방문 약 17만명
평시 3배 이상…시민난장 등 효과
콘텐츠 참신 부족…제한 예산 발목
“기념사업 특정세력 한정 안될 말”

보고 ▲총평 및 발전 방향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총평을 맡은 김순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17-18일 약 17만명의 시민이 광주를 찾았는데, 이는 평시 5만여명의 세배 이상”이라며 “민주주의

대축제로 자리 잡은 대합창·시민난장·오월연극제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장·동명동 등 인근 상권 매출은 양일간 41억원으로 평시 주말 대비 7억7천만원(23%)이 늘었다”며 “택시운전자 포도존, 레트로 버스 등 체험 행사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보 부족과 제한된 예산 문제는 올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가 늘어난 시민 공모사업의 경우 콘텐츠가 유사해 참신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다음 해엔 사업비 확보에 보

다 힘을 쏟고 공모 단계부터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교수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전 방향 발표에서 “망각이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5·18세대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반세기기를맞는제50주년을앞두고5년단위로세우는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다 일찍, 세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정 세대나 단체가 일부 사실을 왜곡해 기념사업 주제를 특정 세력의 역할로 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5·18기념재단

20년사에서는 기념행사를 ‘재단의 협력사업’으로 기록했으나, 지난해 발간된 30년사에서는 ‘첫 번째 독자 사업’으로 서술돼 10년 만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여전히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기반한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움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포스트 5·18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전야제 날짜는 매년 5월18일이 있는 주의 주말로 고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교환하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주성학 기자



광주지법은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선고 후 재판 소회를 밝히고 있는 최기영(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안재영 기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해배상 또 패소

항쟁 당사자·5·18기념재단에
1천만원씩 배상…유포 금지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온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산정했다. 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 금지 등을 명령했다.

기념재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차북환(65)·홍흥준(66)씨 등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

목된 항쟁 당사자들도 원고로 합류했다.

발행 금지 등 명령이 내려진 도서는 지씨가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한 것으로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가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이 특수부대에 대해 지씨는 ‘공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차씨와 홍씨는 각각 1호와 7호로 지목된 인물이다.

원고 측을 변호한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5·18 왜곡과 폄훼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하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며 “5·18 왜곡·폄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순천 레미콘공장서 질식사고…2명 사망·1명 중태

약품탱크 청소작업자 쓰러지자
공장장 등 2명 구조 시도 ‘참변’
순천시, 지역 사업장 안전 점검

순천 한 레미콘공장에서 임직원 3명이 화학약품 저장고에서 산소 결핍 및 가스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안전사고를 당해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2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께 순천시 서면 A 레미콘공장의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탱크 내부에서의

식 불명 상태에 빠진 3명을 발견, 구조에 나섰으나 원기동 형태인 탱크의 입구가 비좁은 탓에 구조가 여의치 않아 수직으로 세워진 탱크를 옆으로 눕혀 오후 3시16분께 김모(60)씨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10여분 간격으로 2번째 부상자(57)와 3번째 부상자(53)를 탱크 밖으로 꺼냈다.

이들 3명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 김씨를 제외한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해 사망했다.

이날 해당 레미콘공장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숨진 2명 중 1명이 탱크 청소에 투입됐는데, 작업이 끝났는데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공장장인 김씨 등 2명이 도우리 내부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초기 탱크 내부의 공기질은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인 3천400ppm에 달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곧잘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초과한 58ppm으로 측정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시도 지난 20일 별관면 금속 구조물 공장에서 발생한 60대 작업자의 사망에 이어 이틀 연속 산업현장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안재영·순천=정기 기자

현직 전남경찰 ‘또’ 음주운전 적발

올해 알려진 것만 5건 달해
안팎서 “백약이 무효” 지적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1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차량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전남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여수경찰서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알려진 것만 5건이다.

구례경찰서 B 경감은 6월7일 영광군에서, 목포경찰서 C 순경은 5월2일 관내에서 각각 음주·속취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3·4월에도 신안경찰서 D 경감과 전남경찰청 기동대 E 순경이 음주운전 비위로 물의를 빚었다.

각 사건 때마다 전남경찰청은 예방 시책을 추진, 강화했으나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비위에 조직 안팎에선 “백약이 무효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재영 기자

새벽 도심 차량 2대에 불 지른 40대 입건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주차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 사이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SUV 1대가 전소되고 다른 차량 1대가 반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걸어서 도주했으나,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차량 방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동구 경찰서 인근에서 검거됐다.

/주성학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